



GP Indonesia 김 화 수 선 교 사

☞. Sariwangi Asri X, No. 8, Kompleks Sariwangi Asri, Kel.Sariwangi,
Kec.Parongpong Bandung Barat, Indonesia

//Tel: +62-22-8202-5858//hp)62-812-2194676//E-Mail: estherhsk@gmail.com

살롱 ~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는 어느 덧 일상처럼 되어 버린 고국 대한민국을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음과 고통소리에 덩달아 시리고 아픈 마음이 되어 어찌할 바 모르고 함께 탄식합니다. 혼돈과 무질서,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서는 그 쓰라린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여 오직 한분 생명이시고 피난처이신 예수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나그네 인생길... 순례자의 길을 한걸음씩 오늘도 걸어 갑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세월을 어찌하지 못해 가끔은 그를 친구 삼아 어디론가 같이 떠나가고 싶은 생각도 물결 출렁이듯 다가옵니다. 상황은 아프고 쓰라리지만 그 어떤 상황가운데서도 늘 곁에 계시며 “나는 네편 이라”속삭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포기라는 단어를 잊은 채 여전히 감사함과 황송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의 길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소망합니다.

인도네시아 ~

예전에 비해,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자연재해와 정치적 혼돈에 비해 오히려 제가 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나름 안정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잡음과 혼선이 일어나긴 하지만 내부의 적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상황은 아니기에 좀 더 수월하게 나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나 박해가 여전히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 절차나 규정들, 또는 행정적인 법들이 자주 바뀌고 있어 나그네와 외국인인 저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대처해야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마지막 때에 인도네시아도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데 큰 몫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은혜의 집 ~

교육을 마치고 때가 되어 떠나가는 아이들과 그들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가족이 된 아이들로 복적거리는 은혜의 집은 어느 때와 같이 재잘거리며 노는 아이들과 찬양소리, 기타등 여러 악기연주소리들이 어우러져 때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또 때로는 불협화음을 이루면서 생동감 있게 하루 하루 분주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2~4세 애기들, 또는 그와 비슷한 어린 나이에 은혜의 집 식구가 되어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며 희로애락을 같이 하던 아이들이 어느 덧 성장하여 이제 하나 둘 은혜의 집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러한 이별에 익숙해진 삶... 함께 부대끼며 짧지 않은 세월을 이일 저일 겪으면서 마음 졸이며 살아왔건만 이곳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혜의 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거대하고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여전히 마음에 밝히고 안쓰러움이 마음에 차오릅니다.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세상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아이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빛 가운데 승리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이라고 일컫는 순다족 아이들 4명과 한국인과 비슷한 성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수마트라의 바딱족 출신 아이 한 명을 보내 주셨습니다. 순다족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는 순다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종족안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리더로서 세워지도록 잘 양육하며 돕고 싶은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곳 공동체의 식구가 된지 한 달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은혜의 집과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순종하며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지난 7월14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은혜의 집 주민등록 등본에 이름을 올리고 다른 입학원서 제출서류들과 함께 등록 수속을 하게 되는데 서류가 온전히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입학수속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약3주간 주정부 교육청 및 반동시 교육청과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군청 호적계를 반복하여 방문하며 길을 찾았고,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 하던 마지막 시점에 우연히 서부자바 주지사가 내린 교육 시행령에 의해 아이들이 무사히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연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신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서부자바주 교육청에 들어서며 사연을 말하던 순간 한 공무원이 웃으며 하던 말...”아! 그렇잖아도 아주 방금 서부자바주 공무원들과 회의를 마쳤는데, 특별히 고아원 아이들이 서류 미비나 어떤 이유로든 학교에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주지사의 교육 시행령이 발표되어 오늘 이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할렐루야 !! 그 동안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서류 수속을 하느라 분주하고 곤비하던 마음과 육신을 기막힌 타이밍에 한여름 폭폭 찌는 무더위에 주어진 열음 냉수보다 더한 시원함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정말 늦지 않게 도착하였습니다...^^.

3 명의 갓난 아이들 그레이스, 글로리아, 레스따리가 어느 덧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생후 1일째 되던 날 은혜의 집에 오게 된 사연 많은 그레이스는 며칠 후면 8개월이 되고, 생후 4일째 은혜의 집 딸이 된 글로리아는 벌써15개월이 되었으며, 레스따리는 1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빠르게 흘러 글로리아와 레스따리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며 온갖 물건을 흐트러뜨려 놓는 재주가 특출하여 일거리를 더해 주지만, 이 예쁘고 사랑스런 아이들이 일상에서 지친 나의 육신과 영혼에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채워주는 에너지가 뭉치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특별히 보모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3명의 베이비들을 저와 은혜의 집 여자 아이들이 나누어 돌보고 잠도 함께 잡니다. 비교적 큰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지만 어쩌다 열이 나고 심하게 아프기라도 하면 우리 같은 아마추어 아기 돌보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대지요. 어느 날 글로리아가 열이 심하고 기침하며 밤이 깊도록 보채고 때론 약을 쓰며 또 때론 지쳐 늘어진 몸으로 슬프게 울어 대는데 아직 어린 아이에게 약을 주는 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혹 약을 주어도 다 도해 내버려 정말 마음을 동동거리며 글로리아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마에 찜질을 해주어도 축 늘어져 계속 슬프게 울어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진심으로 주님께 다시금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의 믿음이 부족하여 기도 드려도 아이가 낫지 않는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계속 울어대는 아이가 안쓰러워 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 대신 제가 아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믿음도 연약하고... 주님의 능력과 보혈로 이 아이의 열과 기침, 몸의 괴로움을 낮게 해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아이의 아픔과 열을 제게 전가시키고 글로리아는 회복시켜 주세요” 계속 기도하며 아이를 품에 안고 침대 모서리에 기대어 잠이 들었는데 아이도 어느 샌가 깊은 잠에 빠져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열이 떨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안도의 숨을 쉬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 갈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이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기에 영영 죽어 마땅한 저의 죄값을 독생자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십자가위에서 사랑의 극치를 보여 주셨는지 다시금 그 사랑을 영혼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리베의 결혼

대학원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던 리베가 지난 5월31일 결혼을 하였습니다. 현지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조촐하게 치른 결혼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진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으니 주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하여 성숙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몇 년 더 사회 생활을 하면서 온갖 유혹과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켜내며 잘 연단되고 훈련되어 장래 은혜의 집의 운영을 맡아 섬길 수 있는 좋은 일군이 되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GGP교단 산하 교회들과 협력 및 순다족 사역자 돕기

협력하고 있는 현지교단 GGP와 교단 산하 살롬 교회와 귀한 동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은혜의 집 아이들과 함께 예배 찬양을 섬기고 있고 또한 여전히 교단 산하 시골 오지 교회들 중에서 어려운 교회들의 예배처소 수리와 재건축 등을 돕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룣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삭목사님 부부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폭우가 며칠 동안 계속 쏟아지더니 집 부근에 있는 강물이 넘쳐 집안까지 흙탕물이 밀려 들어왔고 강물이 빠져 나가면서 음식이나 옷가지들을 다 휩쓸어 가서 먹을 것이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성도들과 동네 사람들의 상황도 마찬

가지라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날로 쌀, 밀가루, 라면 생필품과 옷가지 이것 저것을 준비해 보내고 그 후에 새로운 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가방과 신발, 교복, 노트등을 준비하여 보내 드렸습니다. 기후변화로 비가 더 자주 내리는 요즈음 강 옆 저지대에 사는 그 사역자와 성도들이 올해에만 벌써 두번이나 강물이 범람하여 집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이삭 목사님 부부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8월에 단기팀이 방문합니다. 분주한 일상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단기팀과 현지인들을 잘 섬기고 서로가 힘과 위로가 되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귀한 단기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기팀과 함께 하는 사역과 섬김이 현지인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어제 갑자기 찾아온 손님이 저를 너무 놀라게 하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 한 명이 밖에 누군가 찾아와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길래 그럴잖아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어 그분이겠거니 하며 하던 일을 마치고 잠시 주춤거리다 나가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누구시죠? 무슨 일로?? 그곳엔 반들거리는 까만 얼굴에 반짝 반짝 빛나는 두 눈을 가진 아주 체구가 큰 아프리카에서 온 듯한 두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문한 낯 모르는 두 사람으로 인해 약간 긴장이 되어 앉으며 미소로 질문하자 그 분들이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오벳이고 저쪽은 에담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왔고 이곳 UPI라는 교육대학에 초청을 받아 박사학위를 얼마 전에 끝냈고 제 친구 에담은 이제 9개월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방문한 목적은, 친구 에담이 후원을 하고 싶다 해서 왔습니다…. 네?? 아~~ 감사 감사!!”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저런 생각이 떠오르며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후진국,,,또는 도와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해 오던 저에게 그리고, 그곳까지 가지 못해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 빛진 마음으로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한 나라 가나에서 머언 타국 인도네시아까지 공부하러 온 학생이 자기의 필요도 빠듯할텐데…그리고 또 다른 필요도 많이 있을텐데 은혜의 집에 후원을 하겠다고 찾아오다니… 그로부터 약 1시간여 동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영어 단어들을 억지로 찾아와서 의사소통을 하느라 제 버벅거리는 영어가 많은 고생을 했지만 정말 의미있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당신들 왜 이렇게 영어 잘하는데? 어느 나라 통치받았어요? 영국!! ㅎㅎ ~ 그렇군요…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소개했나요? Google 이 소개해 주던데요… 네 ~ ㅎㅎㅎ… 오, 하나님!! 많고 많은 장소가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 은혜의 집으로 인도해주시고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힘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 행복한 자입니다…”

어머니 !!..

선교지에서 살아간지 35년째… 얼마 후면 99세가 되는 저의 어머니와 함께 하지도 못하고 자주 찾아 뵈지도 못하는 상황에 늘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간답니다. 그 연세에도 교회 가까운데 기거하시며 교회에 자주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뻐하고 낙이라며 지금까지 혼자서 생활하시는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연세가 드셨어도 스스로 모든 생활을 하실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3시면 일어나시고, 4시이전에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를 하시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길 기뻐하시며 손에 있는 무엇이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보노라면 저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부끄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주님안에서 건강하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것 만으로도 제가 선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모든 면에 모본을 보여주는 어머니로 저의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약2개월전 교회에서 전도하는 날이라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도하시는 모습을 전도사님이 영상에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제게 너무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어 저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지친 순간이 오면 영상을 다시 보며 힘을 얻습니다. 영상을 함께 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기까지 어머니처럼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달려 가고 싶습니다. ^_^

오랫동안 소식 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로 힘이 되어주시는 여러 동역자님들께 저의 사랑과 감사와 그리움을 전합니다. 때로는 너무 곤고하고 지칠 때 많았지만 여전히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시고 저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이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걸어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곳에서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길 소망하며 늘 강건하시고 승리의 삶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

2025년 8월 2일 인도네시아 김화수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

1. 생명이신 주님께 나아와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2. 은혜의 집에 새로운 식구들이 된 아이들이 모든 면에 잘 적응하고, 영적으로나 교육적인 면에서 귀한 진보를 나타내도록.

3명의 베이비들을 주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건강한 가운데 성장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 받는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큰 아이 한 명이 피부병에 걸려 다른 아이들도 감염되어 다 한번씩 아프고 지나갔는데, 이제 3명의 베이비가 가려움과 피부에 진물이 나는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리 부분이 좀 심한데 주님의 권능이 그 아이들 위에 임하여 속히 온전히 치유되도록).

조나단과 하니 2명의 아이들이 8월말에 대학에 입학하는데 대학생살에 잘 적응하고 시간은 균형 있게 사용하여 은혜의 집 일도 잘 도우면서 대학생살을 해 나가도록...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 계속 좋은 성적을 유지하여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3. 2025년 남은 시간도 은혜 유치원에 새로운 원생들을 많이 보내주시길, 충성 되고 신실한 실력 있는 교사를 보내주시도록,
4. 은혜의 집 아이들이 예배와 기도회 및 공동체 삶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은 개인적으로 체험하며, 개개인이 회심의 역사가 있도록.
삶과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며 어떤 환경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사춘기시절은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잘 지나가도록.

-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사회와 직장, 하나님 나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도록.
- 아이들과 제가 성경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 악기 연주를 포함해 모든 일에 진보를 이루며 좋은 열매를 맺도록.
- 은혜의 집을 위해 충성되고 신실한 소명 있는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5. 유치원의 물 부족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주께서 지혜와 도움을 주시어 근본적인 문제들이 발견되고 해결되어 물을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6. 주께서 주신 물질과 생필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다족 사람들과 예배 처소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잘 나눌 수 있도록...
7. 영육간 회복과 당뇨 증상 및 몸의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도록.
8. 98세의 연로하신 어머니이 늘 강건하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 및 성경이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생을 보내시며 저와 이곳 사역을 위한 가장 신실한 기도의 후원자로 계속하여 사용해 주시도록.

링크 1)

https://drive.google.com/file/d/1Yo4nOM2mp5EJ_ocUQyEB73ARN3KPnRog/view?usp=drive_link

링크 2)

https://drive.google.com/file/d/1Q4A679n1yytOas12d3s67_iWJRjg8Ibd/view?usp=drive_link